제52회 고흥군민의 날, 유자 빛으로 하나 된 군민!

군민 화합 다짐…군악대 행진·읍면 입장식 등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공영민 고흥군수 기념사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지난 12일 풍양면 한동리 유자축제장 주무대에서 군민과 향우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고흥군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해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31사단 군악대 행진을 시작으로 16개 읍·면의 특색을 담은 입장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기념식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2억 4,400만 원 기탁과 군민의 상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군민 화합 퍼포먼스에서는 읍·면 대표들이 읍면기와 군기를 흔들고 군민들이 유자 부채를 함께 흔들며 축제장을 노란 물결로 물들였다.

이와 함께 제1회 고흥군수배 군민 파크골프대회와 읍·면 대표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2026 보성 미식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보성군은 지난 11일 보성행복마루에서 '2026 보성 미식 아카데미' 수료식을 열고 출석률 80% 이상인 교육생 28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성 미식 아카데미'는 지역 외식업소의 메뉴 개발과 위생·서비스 개선을 돕기 위해 9월 11일부터 두 달간 보성과 벌교 두 권역에서 운영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1회, 총 27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은 ▲경영 자세, ▲식품안심업소 제도 이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및 조리 실습, ▲음식문화 우수 업소 견학, ▲서비스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 등 실무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보성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한국 근대문학 100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해남군이 한국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명작들의 가치를 조명하는'한국문학 탄생, 100년 작가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문학사의 큰 산맥인 박경리 소설가와 박인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및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초간본 발간 100주년을 맞아 이들의 문학적 유산과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학술 강연으로 오세영 서울대 명예교수의'국어교육과 문학교육'기조강연 유성호 문학평론가의'침묵과 노래, 수난과 사랑, 한국근대문학 100년을 돌아보며'가 진행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오세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주제강연을 통해 한국 근대문학 100년의 흐름과 문학적 가치를 조명한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2027년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

진도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막바지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의원 등 중진 국회의원 11명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과 핵심 국고지원 사업 10건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서미화 의원실을 방문해 '진도군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과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증축'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복지관 식당 증축은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2026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개최

장흥군은 지난 10일 장흥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선희) 주관으로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육교직원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선희 연합회장은 "보육 현장에서 항상 애쓰시는 보육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마음대회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어린이집 운영비·냉난방비 지원과 찾아가는 언어치료 등 다양한 보육정책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2026년산 공공 비축 미곡 1,850톤 수매

25일까지 읍면서 진행, 품질 관리 위해 품종 검정 제도 운영



공공 비축 미곡 건조 벼 매입 약산면 수매 현장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10일 약산면을 시작으로 25일까지 2026년산 공공 비축 미곡 건조 벼를 매입한다.

올해 매입 물량은 산물 벼 875톤과 건조 벼 975톤 등 총 1,850톤이며,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조명 1호 등 2개 품종이다. 산물 벼는 10월부터 완도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와 고금DSC(건조·저장시설)에서 매입하고 있다.

건조 벼 매입은 11일에는 신지면에서 진행됐으며, 12일에는 노화읍과 보길면, 17일에는 완도읍, 18일에는 군외면과 청산면, 19일에는 금당면, 20일에는 금일읍, 24일과 25일에는 고금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군은 다른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고 공공 비축 미곡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품종 검정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출하 농가 중 5%를 표본으로 선정해 품종 검정을 실시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지정된 품종 외 다른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매 농가에는 수매 직후 40kg당 6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한다.

최종 매입 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하며, 차액은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신 군수는 지난 10일 약산면을 찾아 매입 상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송 장비를 활용한 작업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